

# 유아의 조기영어교육과 이중언어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

## Children's Early English Education and the Factors on their Bilingual Language Development

황혜신\*\*  
상명대학교

Hwang, Hae Shin  
Sangmyung University

### Abstract

The study purposes to explore the effect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home environments of children on their bilingual language acquisition, that is, to examine whether their English language competency is different from their Korean language competency depending on those variables. Thus English or Korean language competency of children who had had early exposure in English learning were studied in terms of child's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age, gender, exposure period to English, intelligence, and experiences of visiting English-speaking countries, and home environments such as parental age, educational level, income level, their perceived English competency, their perceived significance of English and Korean language, and the frequency of using English at home. 72 children who went to English kindergarten were tested with Peabody Pictures Vocabulary Test-Revised (PPVT-R) in Korean version and in English version respectively. The results show that child's intelligence and experiences of visiting English-speaking countries influence their Korean language competency. Also child's age, exposure period to English and experiences of visiting English-speaking countries influence their English language competency. Moreover their mother's educational background, father's English fluency, mothers' English fluency, and the frequency of using English at home influence child's English language competency, whereas any variables did not influence child's Korean language competency. Accordingly, child's English and Korean language competencies are related to each other.

Key Words : early English education, bilingual language development, child's individual characteristics, parents' English fluency, home environment

### I. 서론

최근에 급속한 국제화를 맞이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영어사용 능력이 강조되면서 모국어 외에 제2언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그 시작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다. 한국 부모들의 유별난 교육열에 부합하여 유아교육기관에서도 영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수많은 영어교재들이 출판되었고, 몇 년 전부터는 원어면에 의해서 영어로만 활동이 진행되는 영어학원

이 성행하고 있다. 이렇듯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의 고조는 이미 찬반론을 떠나 어떤 형태로든 유아의 영어교육을 부추기게 되었다.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부정적인 측면이 지배적이다. 일찍부터 영어조기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나친 사교육비의 팽창이라던가 계층간의 위화감 조성,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받는 아동들의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한 발달병리학적인 문제들과 더불어 조기 영어교육의 강사,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유아의 뇌 발달에 부작용을 일으키고 학습의 효과도 줄어든 것이라는 결과(우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41-B00534)

\*\* Corresponding author: Hae Shin Hwang  
Tel: 02) 2287-5346, Fax: 02) 396-5968  
E-mail: hshwang@smu.ac.kr

남희, 2002)도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은 일찍부터 영어와 한국어를 공부하는 유아들을 이중언어 발달 측면에서 연구하고 검증하고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일부에서 유아들의 언어발달을 이중언어 발달적 측면에서 살펴보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학원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유아들이 이중언어 구사자이냐는 이중언어의 정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러한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기영어교육의 효과를 이중언어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중언어에 대한 정의나 범위에 대해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중언어는 사용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을 지닌 현상이어서 이중언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행해진 연구들에 있어서 "이중언어사용(bilingualism)"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해 상당한 차이가 있어왔다. 일반적으로 언어구사능력 수준 및 기능 등과 같은 요인에 따라 범주화 척도 및 양분법 등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또 기술되어왔다. 구체적으로 두 개의 언어를 알고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에 있어서 최소한의 지식도 이중언어로 인정하는 최소론자에서부터 거의 완전히 통달한 제 1언어와 제 2언어의 동등한 능력만을 인정하는 최상론자가 있다(이귀옥, 전효정, 박혜원, 강완숙, 장미자, 2004).

Bloomfield(1993)은 이중언어 사용을 정의하는 스펙트럼의 한 쪽 극점을 보여주었다. 그에 따르면 이중언어사용자란 두개의 언어에 대해 마치 모국어 사용자와 같은 구사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모국어 사용자와 같은 구사력은 아닐지라도 두 개 이상의 언어에 대해 어느 정도의 구사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설명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는 결과를 빚었다(박주경, 1993). MacNamara(1967)는 이중언어 사용을 보다 더 포괄적인 측면에서 정의했다. 즉 이중언어 사용자란 자신의 모국어 이외의 한 언어에 있어서 네 가지 언어기술, 즉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중 어느 한 가지에 대해 최소한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박주경(1993)의 연구에서도 MacNamara의 정의를 적용하여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한국 아동들의 언어선택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홍중선(2000)에 의하면 언어의 위상이나 언어 환경에 따라 기본적으로 습득한 제1언어와는 별도로 배워서 알게 된 언어를 제 2, 제3 언어로 볼 수도 있고 외국어로 볼 수도 있는데 양자를 포괄적으로 이중언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이중언어 개념을 적용하여 이민이나 이주를 통한 이중언어의 습득이라든가 부모가 이중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이중언어를 접하게 되는 경우와는 차별화하여, MacNamara(1967)의 정의에 입각하여 영어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들의 언어발달을 이중언어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중언어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고, 아직도 활발한 논쟁의 쟁점이 되고 있는 분야가 이중언어 사용이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에 대한 연구이다. 즉 한 아동이 동시에 두 개의 언어를 습득 또는 학습하는 것이 그 아동의 언어적 발달, 인지적 성장 그리고 교육적 성취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별 상관없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이 연구들이 가지는 중요성 중의 하나는 이러한 결과들이 조기영어교육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을 지니고 교육을 주도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장미경, 1995).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유아의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많은 연구들은 '균형적 이중언어(balanced bilinguals)'의 관점에 의해서 두 가지 언어를 모두 잘 구사하는 아동이 단일언어를 사용하는 아동에 비해서 인지, 상위인지, 상위언어, 사회언어가 우수하다는 증거를 제공하여 '부가적 이중언어주의(additive bilingualism)'를 주장하며, 아동이 모국어의 상실 없이도 다른 언어를 균형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장점에는 언어에 대한 인식과 조절의 증가, 인지적 융통성, 유추와 분류기술의 증진, 구문과 상징에 대한 이해 등도 포함된다(Bain, 1996; Bialystok, 1988, 1991; Diaz, 1985; Galambos & Hakuta, 1988; Hakuta, 1987; Hakuta & Diaz, 1985; Mulhern, 2002; O'Toole, Aubeeluck, Cozens, & Cline, 2001)). 더구나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아동에 있어서 이러한 상위 언어적, 상위 인지적 장점은 취학전 시기에 이미 나타난다고 한다(Campbell & Sais, 1995; Diaz, Padilla & Weathersby, 1991).

최근에 황혜신(2004)은 조기영어교육의 효과를 이중언어 발달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조기영어교육이 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조기영어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들의 한국어 능력과 영어능력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영어를 이중으로 사용하는 아동과 한국어만 사용하는 아동의 음운인식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한국어와 영어를 이중으로 사용하는 아동 집단이 한국어만 사용하는 아동집단에 비해 음운인식능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박민영, 고도홍, 이윤경, 2006), 이중언어 아동들이 단일언어 아동들보다 높은 수준의 통제가 필요한 과제에서 수행력이 높으며, 비언어적 문제해결에서도 높은 통제수준이 요구되는 과제와 수세기에서 이중언어 아동이 단일언어 아동보다 우수하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Bialystock & Codd, 1997). 이중언어의 사용이 아동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조선족 이중언어 아동은 중국어 능력에

있어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언어의 절대적 능력과 동일 연령 집단 내에서 상대적 언어능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이귀옥, 전효정, 박혜원, 2003).

과거에는 이중언어 사용을 일종의 핸디캡으로 여겼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조건으로 보는 관점으로 바뀌었다. 즉 이중언어 사용 아동들이 언어간의 차이점에 대해 더욱 잘 인식하고 있으며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데 더 뛰어나고 학교생활에도 동기의식이 높아서 다른 아동들에 비해 우수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있다(장미경, 1995). 모국어만을 습득할 때에는 언어의 형식적 측면에 의식적인 주의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없지만 외국어를 배울 때에는 두 가지 부호를 구별하기 위해 언어의 형식적인 측면에 의식적으로 주의집중을 해야 하므로 상위언어 발달이 촉진된다는 것이다(Galambos & Goldin-Meadow, 1990).

한편, 이중언어가 유아의 인지 및 언어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이 있다. ‘감가적 이중언어주의(subtractive bilingualism)’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어린 시기에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모국어의 발달을 저해한다고 보며 이러한 현상은 자신들의 모국어가 자신이 속한 사회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닐 때 더 잘 일어난다고 한다. 대표적 학자인 Wong(1991a.b)은 어린 시기에 제2언어(영어)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의 모국어의 발달이 느려지며 점차 일반적인 언어발달에 문제가 있는지를 밝혀보려고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에 이민 온 소수민족아동 중에 영어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의 모국어 능력이 급격히 떨어졌으며, 이러한 결과가 집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문제를 가져오며 가족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나아가서 발달상 높은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중언어 발달의 과정과 결과, 사고와 다중언어 사이의 상호작용, 다양한 연령시기에 다중언어에 체계적으로 노출된 것이 아동의 심리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중언어의 발달을 조장하거나 저해하는 사회적, 교육적 맥락 등의 연구주제를 통하여 이중언어(bilingualism)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는데, 많은 연구들은 일관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Bialystok, 1988, Bialystock & Hakuta, 1994).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맥락과 환경적인 변인을 고려하여 유아들의 이중언어발달양상을 연구하였다. 이중언어가 유아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 또한 아동이 이중언어를 배우게 되는 환경에서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는 것은 환경에 따라 이중언어 발달 양상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가족구성원에 따라, 양육조건에 따라, 또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두 언어에 노출되는 양과 종류는 달라진다(Pearson, Fernandez,

Lewedeg, & Oller, 1997). 따라서 단순히 이중언어가 아동의 발달이나 인지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느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느냐는 의미가 없다. 어떠한 상황들이 개별적으로나 상호작용을 통해 이중언어 발달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과거의 연구들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도 유아들의 개인적인 맥락이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유아의 개인적인 맥락의 차이들이 이중언어 발달 양상을 다르게 설명하여 준다. 이중언어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이 상당히 다양하다는 것은 아동의 이중언어의 본질이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중언어를 하는 아동들마다 언어학습 경험이 다르고 두 언어에 대한 능력의 정도, 각 언어를 편하게 느끼고 잘 사용하는 상황이 다양하다. 특히 순차적 이중언어 습득의 성공여부는 습득하려는 언어 사용자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나 정체성, 그리고 자신의 모국어와 그 문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Tabors, 1997).

본 연구에서는 이중언어발달에 영향을 주는 유아의 개인적 맥락으로 유아의 연령 및 성별과 영어노출정도, 인지적 능력, 영어권 국가 방문 기간 등의 변수를 고려하였다. 보다 나이든 유아는 더 어린 유아에 비해 보다 빠른 속도로 제 2언어를 배운다(Snow & Hoefnagel-Hohle, 1978). 그러나 궁극적으로 문법을 습득하고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는 능력은 어린 유아가 성취하기 쉽다.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는 것은 특히 연령과 관계가 깊다. 2세부터 제2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아동은 6세에 시작한 아동보다 더 정확히 말하며, 6세에 시작한 아동은 12세에 시작한 아동보다 더 잘한다.

Elardo 등(1977)은 아동의 언어능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는 성별에 따라 가정환경이 다르게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남아들은 어머니가 정서적이고 언어적인 반응을 보이고 적절한 놀이자료가 제공될 때 언어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여아들은 적절한 놀이자료가 제공되는 것 외에 어머니의 참여정도가 높고, 일상생활에서 자극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많이 제공받을수록 언어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귀옥 외(2004)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아동의 한국어와 중국어 발달에 차이가 없었다.

이중언어의 발달에 관한 연구들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입력자극이 언어습득에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de Houwer, 1995). 아동은 노출된 언어를 배울 뿐만 아니라 노출된 정도만큼 배우는 것으로 보인다(de Houwer, 1995; Pearson et al., 1997). 아동이 두 언어에 노출되는 맥락, 각 언어에 노출되는 양, 제 2언어에 노출되기 시작한 연령에 있어서도

상당히 다르다. 언어학습 상황의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이중언어 발달의 본질은 상당히 이질적이다. 제2언어를 공식적으로 배우기 전에 그 언어에 노출되는 정도와 그 언어를 배우면서 제2언어 환경에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 이중언어 발달 양상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4세에 처음 영어를 접해긴 했지만 그전에 영어문화권 접해보았다던가 원어민과 접촉이 잦았던 유아는 처음으로 영어를 접하는 아동과 다르다. 또한 노출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즉 하루에 어느 정도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접하는가. 제2언어의 문화에 얼마나 익숙한 가도 이중언어 발달에 영향을 준다. 이귀옥 외(2004)의 연구에서도 소학교 입학 전에 한어에 노출된 아동이 이후에 노출된 아동보다 한어를 더 잘한다고 하였다. 즉 제2언어의 노출시기가 빠를수록 유창성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개인적 특성 중 마지막으로 유아의 지능은 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상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연구가 일치하지 않은 경향이 있어 Pinsleur(1980)같은 경우는 지능이 이중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지만 지능과 언어발달이 상관관계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지능이 이중언어 발달에도 영향을 주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황정규와 이정애(1976)의 연구에서도 아동의 지능이 여러 변수들과 함께 아동의 언어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중언어 발달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은 이중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개인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제2언어에 노출되는 가정의 맥락, 사회적 맥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의 언어에 대한 태도는 가정 내 언어의 실제 사용에 영향을 주고 이는 아동의 언어발달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즉 부모가 모국어 이외의 제 2, 3의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확 있는지에 따라 외국어 교육 환경에 영향을 줄 것이며 이러한 언어환경에 따라 아동의 언어 유창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이귀옥 외, 2004). 따라서 조기영어교육을 통해 이루어진 이중언어 발달은 습득하는 유아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유아가 속한 가정, 사회, 문화적 배경이나 맥락에 따라 달라지며 이러한 사회, 문화적 맥락은 직·간접적으로 유아의 개인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결국 이중언어 발달은 다양한 맥락에서 여러 환경들의 직접·간접 영향 및 상호작용 효과 내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과거에 주로 이중중어사용아동과 단언어사용 아동을 단순 비교하여 그들의 언어능력이나 인지능력을 살펴보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이제는 이중언어사용 아동을 좀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다양한 환경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적 특성이 아동의 언어발달에 어떠한 영

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최근 급속한 국제화에 의한 지구촌 시대를 맞이하여 제 2언어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절실히 요구된다(이귀옥, 전효정, 박혜원, 강완숙, 장미자, 2004).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기영어교육이 유아의 이중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 영향력이 유아의 개인적인 특성과 가정환경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중언어에 대한 결과들이 일치하지 않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가능하지 않은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유아들이 일찍부터 영어를 접하면서 영어조기교육을 경험할 경우 그들의 영어 능력과 한국어 능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들의 이중언어 능력은 유아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 (1) 유아들의 한국어 능력은 유아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 (2) 유아들의 영어 능력은 유아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2. 유아들의 이중언어 능력은 가정환경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 (1) 유아들의 한국어 능력은 가정환경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 (2) 유아들의 영어 능력은 가정환경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3. 유아들의 한국어 능력과 영어 능력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2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원어민에 의해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영어 유치원(학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들이다. 영어 유치원은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부분의 활동이 영어로 진행되며 한 교실에 12명 이하의 유아들이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활동한다.

본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유아들의 일반적인 특징

변인	구분	빈도(비율)	계
연령	3세	28(36.4)	77(100.0)
	4세	17(22.1)	
	5세	32(41.6)	
성별	남	41(53.2)	77(100.0)
	여	36(46.8)	
노출기간	1년미만	17(22.1)	77(100.0)
	1-2년	28(36.4)	
	2년이상	32(41.6)	
영어권 국가 방문기간	없다	41(53.2)	77(100.0)
	6개월 미만	26(33.8)	
	6-12개월	10(12.0)	
	1년 이상	0 (0.0)	

연구에 참여한 유아들의 연령 및 성별 분포는 3세가 28명(36.4%), 4세가 17명(22.1%), 5세가 32명(41.6%)이며, 남아가 41명(53.2%), 여아가 36명(46.8%)으로 연령과 성별에 있어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영어에 노출된 기간은 구체적으로 영어유치원의 재원기간으로 '2년 이상'이 32명(41.6%)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1-2년'(28명, 36.4%), '1년 미만'(17명, 2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어권 국가를 방문한 기간은 '없다'가 41명(53.2%)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6개월 미만'(26명, 33.8%), '6-12개월'(10명, 12.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2> 부모들의 일반적인 특성

변인	구분	빈도(비율)	계
어머니 교육수준	고졸	10(13.0)	77(100.0)
	대졸	46(59.7)	
	대졸이상	21(27.3)	
아버지 교육수준	고졸	0 (0.0)	77(100.0)
	대졸	49(63.6)	
	대졸이상	28(36.4)	
소득	300만원 이하	9(11.7)	77(100.0)
	300-400만원	16(20.8)	
	400-500만원	32(41.6)	
	500만원 이상	20(26.0)	

아버지의 연령은 평균 40.26세(SD=5.01)세이고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5.89세(SD=2.62)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대졸'이 49명(63.6%), '대졸이상'이 28명(36.4%)이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대졸'이 46명(59.7%), '대졸이상'이 21명(27.3%), '고졸'이 10명(13.0%)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400-500만원'이 32명(41.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500만원 이상'(20명, 26.0%), '300-400만원'(16명, 20.8%)의 순으로 나타나 비교적 부모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유아의 특성

유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질문지를 구성하여 부모님들이 작성하게 하였다. 질문지는 유아의 성별, 연령, 영어를 접한 기간, 최근에 영어권 국가 방문 정도를 물어보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유아의 지적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웨슬러 유아지능검사의 한국어 판인 K-WPPSI(박혜원, 박금주, 박광배, 1996)를 사용하였다. K-WPPSI 중 언어지능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이 높은 어휘검사문항 25문항과 공통성문항 20문항 총 45 문항을 실시했다.

(2) 가정환경

유아가 속한 가정의 환경과 부모특성과 관련한 변인으로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영어수준, 영어와 한국어에 대한 인식, 가정에서 영어사용정도 등을 묻는 문항을 질문지를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부모의 영어수준과 영어와 한국어에 대한 인식은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영어수준이 높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영어와 한국어의 중요성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가정에서 영어사용정도는 4점 척도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3) 영어와 한국어 능력

대상 아동의 언어능력 검사를 위하여 PPVT-R(Peabody Pictures Vocabulary Test-Revised)의 영어판과 한국어판을 사용하였다. 영어 어휘력 검사는 PPVT-R(Dunn & Dunn, 1981)을 사용하였으며, 한국어 어휘력 검사는 그림어휘력검사(PPVT-R의 한국어판,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1995)를 사용하였다. 그림어휘력검사의 문항구성은 PPVT-R의 문항을 기초로 하고 그 외에 초등학교 교과서 언어 발달에 관한 논문들을 참고로 선별하여 그 신뢰도와 타당도에 있어 표준화된 검사도구이다. 즉, 영어와 한

국어의 어휘력을 측정하는 PPVT-R의 한국어판과 영어판은 모두 표준화된 검사도구이며, 이를 통해 한국어와 영어의 어휘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두 점수간 비교가 가능하다.

그 동안에 이루어진 이중언어에 대한 연구들은 특정 언어의 발달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검사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사용해왔으며, 이렇게 표준화되지 않은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결과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 결과의 신뢰도 또한 떨어졌다(Wilen & Sweeting, 1986). 본 연구에서는 여러 연구를 통해 PPVT-R의 영어판과 일치하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여준 PPVT-R의 한국어판인 그림어휘력 검사를 사용하여 연구의 신뢰도를 높여주었다.

검사의 점수는 각 아동들의 원 점수를 연령 기준에 의해 백분위점으로 산출하고 이를 표준점수로 전환하여 처리하였다.

###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06년 9월에 이루어졌다. 서울시에 소재한 영어학원(유치원)을 방문하여 본 연구를 위한 검사를 하였다. 본 검사에는 연구자와 3인의 전공 대학원생이 참여하였다. 우선 기관을 방문하여 원장 및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원장으로부터 각 기관의 수업내용에 대한 정보를 얻고 부모들에게 질문지를 나누어주어 유아들의 일반적인 특성 및 가정환경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검사는 각 기관에서 이루어졌다. 자유활동시간에 아동을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Wechsler 검사, 영어판 PPVT-R 검사와 한국어판 PPVT-R 검사를 하였다.

### 4) 자료분석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의 기술 통계치를 구하고 이중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개인적 특성과 가정환경 변수를 포함하는 다변량분석(multiple regression)을 통해 각각의 변수들이 어떠한 영향을 주고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떤지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 II. 연구결과

### 1. 유아의 영어와 한국어 능력

PPVT 검사를 통해 유아들의 전반적인 한국어와 영어 능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표 3>을 보면 유아들의 한국어 점수가 영어보다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와 한국어 모두 연령에 따라 점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는 아닌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영어는 연령에 따라 유의미하게 점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43.60, p<.001$ ).

### 2. 유아의 특성에 따른 이중언어 능력

유아들의 특성에 따라 이중언어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특성에 따른 한국어 능력과 영어능력을 각각 살펴보았다.

#### 1) 유아의 특성에 따른 한국어 능력

유아의 연령, 성별 및 지능, 영아노출기간, 최근 영아권 국가 방문여부가 한국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하기에 앞서 설정한 모형의 가정이 적절한지 보기위해 Durbin-Watson 계수 산출결과 1.619로 나타나 2에 근접하고 있어 잔차항 간의 체계적인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선성의 존재여부 파악을 위한 허용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을 산출하였다. 허용도의 값이 .1이하이거나 분산팽창요인의 값이 10 이상이면 공선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허용도의 값은 .637~.970으로 모두 .1이상 이었고, 분산팽창요인의 값이 1.033~1.571로 모두 10이하 였으므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가정은 만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설정한 회귀분석 모형의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계수가 회

<표 3> 연령에 따른 한국어와 영어 점수

연령	N	PPVT 한국어			PPVT 영어		
		M	SD	F	M	SD	F
3세	17	93.24	13.54		42.12	8.88	
4세	28	95.96	13.85	1.65	64.57	14.09	43.60***
5세	32	100.91	13.58		75.94	11.57	
전체	77	97.64	13.79		64.34	17.58	

귀계수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잔차항 들이 독립적이고 정규분포이므로 정상적인 중다회귀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 유아의 한국어 능력을 설명해주는 변인은 지능( $\beta=.55, p<.001$ )과 영어권국가방문기간( $\beta=.20, p<.05$ )으로 나타났다. 즉 지능이 높을수록, 그리고 영어권 국가 방문기간이 짧을수록 한국어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은 한국어 능력의 전체 변량 중 30%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연령이나 성별, 영어노출기간은 한국어 능력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2) 유아의 특성에 따른 영어능력

유아의 연령, 성별 및 지능, 영어노출기간, 영어권 국가 방문여부가 영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Durbin-Watson 계수 산출결과 1.619로 나타나 2에 근접하고 있어 잔차항 간의

체계적인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용도의 값은 .637~.970으로 모두 .1이상 이었고, 분산팽창요인의 값이 1.033~ 1.571로 모두 10 이하였으므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가정은 만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분석결과 유아의 영어 능력을 설명해주는 변인은 연령( $\beta=.20, p<.05$ )과 영어노출기간( $\beta=.80, p<.001$ ), 영어권국가 방문기간( $\beta=.26, p<.01$ )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영어를 접한 시기가 길수록, 그리고 영어권 국가의 방문 기간이 길수록 영어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은 영어 능력의 전체 변량 중 58%를 설명하고 있으며 영어권 국가 방문 기간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이나 지능은 영어 능력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한국어 능력에 미치는 유아 특성 변수들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설명변수	b	se	Beta
연령	1.18	1.87	.08
성별 <sup>1)</sup>	-.49	2.68	-.2
지능	2.87	.51	.55***
영어노출기간 <sup>2)</sup>	2.31	2.13	.13
영어권국가방문기간 <sup>3)</sup>	-3.85	1.92	-.20*
상수	48.57		
R <sup>2</sup>	.30		
F	7.46***		

\* $p<.05$  \*\* $p<.01$  \*\*\* $p<.001$

1) '남아'를 1, '여아'를 2로 가변수화 함

2) '1년 미만'을 1, '1-2년'을 2, '2년 이상'을 3으로 가변수화 함

3) '없다'를 1, '6개월 미만'을 2, '6-12개월'을 3, '1년 이상'을 4로 가변수화 함

<표 5> 영어 능력에 미치는 유아특성 변수들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설명변수	b	se	Beta
연령	3.98	1.84	.20*
성별 <sup>1)</sup>	-1.60	2.64	-.05
지능	.64	.50	.10
영어노출기간 <sup>2)</sup>	18.15	2.10	.80***
영어권국가방문기간 <sup>3)</sup>	6.36	1.89	.26**
상수	25.30		
R <sup>2</sup>	.58		
F	22.12***		

\* $p<.05$  \*\* $p<.01$  \*\*\* $p<.001$

1) '남아'를 1, '여아'를 2로 가변수화 함

2) '1년 미만'을 1, '1-2년'을 2, '2년 이상'을 3으로 가변수화 함

3) '없다'를 1, '6개월 미만'을 2, '6-12개월'을 3, '1년 이상'을 4로 가변수화 함

### 3. 가정환경에 따른 유아의 이중언어 능력

유아들의 가정환경에 따라 이중언어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특성에 따른 한국어 능력과 영어능력을 각각 살펴보았다. 우선 전반적인 가정환경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정환경에 포함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인식하는 영어수준과 영어 및 모국어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가정에서의 영어 사용정도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모가 인식하는 영어 수준을 알기 위해 본인이 생각하는 영어수준을 4점 척도로 응답케 하였다. 그 결과 평균 2.06(SD=.80)으로 나타나 어머니들은 자신의 영어수준을 보통 이하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인식은 평균 2.58(SD=.95)로 어머니의 점수보다도 높으며 보통이상의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케 한 결과 평균 4.27(SD=.62)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국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평균 4.39(SD=.59)로 높게 나타나 부모들이 영어와 모국어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하여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얼마나 자주 영어를 사용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4점 척도로 응답케 한 결과 2.83(SD=.71)으로 가끔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가정환경에 따른 한국어 능력

유아가 속한 미시체계인 가정환경이 유아의 한국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하기에 앞서 설정한 모형의 가정이 적절한지 보기위해 Durbin-Watson 계수 산출결과 1.589로 나타나 2에 근접하고 있어 잔차항 간의 체계적인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선성의 존재 여부 파악을 위한 허용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을 산출하였다. 허용도의 값이 .1이하이거나 분산팽창요인의 값이 10 이상이면 공선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허용도의 값은 .645~.916으로 모두 .1이상 이었고, 분산팽창요인의 값이 1.092~ 1.550으로 모두 10 이하였으므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가정은 만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분석결과 유아의 한국어에 영향을 주는 의미 있는 변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 2) 가정환경에 따른 영어능력

유아가 속한 미시체계인 가정환경이 유아의 영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하기에 앞서 설정한 모형의 가정이 적절한지 보기위해 Durbin-Watson 계수 산출결과 1.030로 나타나 2에 근접하고 있어 잔차항 간의 체계적인 상

<표 6> 영어 능력에 미치는 가정환경 변수들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설명변수	b	se	Beta
엄마나이	-.58	.57	-.09
아빠나이	.16	.29	.05
엄마교육 <sup>1)</sup>	10.45	2.47	.37***
아빠교육 <sup>2)</sup>	4.46	2.76	.12
소득 <sup>3)</sup>	.11	1.55	.01
아빠영어수준	7.05	1.56	.38***
엄마영어수준	4.60	1.86	.21*
영어인식	.87	2.36	.31
모국어인식	-.12	2.71	-.01
영어사용정도	4.97	2.05	.20*
상수	.32		
R <sup>2</sup>	.59		
F	12.273***		

\* $p < .05$  \*\*\* $p < .001$

1) '고졸'을 1, '대졸'을 2, '대졸 이상'을 3으로 가변수화 함

2) '고졸'을 1, '대졸'을 2, '대졸 이상'을 3으로 가변수화 함

3) '300만원 이하'를 1, '300-400만원'을 2, '400-500만원'을 3, '500만원 이상'을 4로 가변수화 함



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용도의 값은 .645~.916으로 모두 .1이상 이었고, 분산팽창요인의 값이 1.092~1.550로 모두 10 이하였으므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가정은 만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분석결과 유아의 영어 능력을 설명해주는 변인은 어머니의 교육수준( $\beta=.37, p<.001$ )과 아버지의 영어수준( $\beta=.38, p<.001$ ), 어머니의 영어수준( $\beta=.21, p<.05$ ), 가정에서의 영어사용정도( $\beta=.20, p<.05$ )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어수준이 높을수록, 가정에서 영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유아들의 영어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영어수준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은 영어 능력의 전체 변량 중 59%를 설명하고 있으나 그 외 다른 영향력이 있는 변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 4. 영어와 한국어의 상관관계

조기영어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들의 한국어 능력과 영어 능력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영어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들의 한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를 Pearson 상관관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유아의 연령에 따른 한국어와 영어 능력간의 상관관계

연령	N	Pearson's r
3세	28명	.42
4세	17명	.41*
5세	32명	.37*
전체	77명	.39**

\*  $p<.05$  \*\* $p<.01$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아들의 한국어 능력과 영어능력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p=.39, p<.01$ ). 즉 영어를 잘하는 유아의 한국어 점수가 높고 반면에 영어 점수가 낮은 유아일수록 한국어 점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유아의 연령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에서 한국어와 영어 능력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4세( $p=.41, p<.05$ )와 5세( $p=.37, p<.05$ )세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III.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조기영어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영어와 한국어 능력 및 언어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을 이중언어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최근 조기영어교육이 조기교육의 핵으로 떠오르면서 많은 유아들이 일찍부터 영어를 배우고 있다. 유아들이 다양한 형태의 학원과 교재를 통해 영어를 배우고 있으며 이에 대해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어려서부터 일찍 외국어를 접하게 되면 모국어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외국어도 효과적으로 배울 수 없다는 걱정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들로 인해 이중언어의 측면에서 조기영어교육에 접근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또한 이중언어의 정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들을 이중언어자로 보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도 이중언어의 맥락에서 이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선 조기영어교육의 실태적인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유아들의 이중언어 발달양상을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살펴보고 나아가서 한국어와 영어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두 언어의 발달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조기영어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들의 영어와 한국어 능력은 유아의 개인적인 특성 및 다양한 언어교육 환경과 가정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유아들의 한국어 능력은 지능과 영어권 국가 방문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지능검사 중 언어검사 결과가 높을수록 유아의 한국어 점수가 높아진다. 이는 인지발달 수준이 한국어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이귀옥 외의 연구(200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영어권 국가 방문정도가 유아의 한국어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시기에 외국에 있는 기간이 많아질수록 상대적으로 한국어 능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한국어 능력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외국에서의 경험이 한국어의 어휘 획득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언어발달의 결정적인 시기에 외국에서의 생활이 상대적으로 한국어를 습득할 기회를 앗아갔다고 설명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장기적이면서 축적된 연구 결과가 필요하다. 한편, 연령은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PPVT의 점수가 이미 연령에 따라 표준화된 점수이기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유아들의 영어 능력은 연령과 영어노출정도, 영어권 국가 방문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선족 아동들의 중국어발달에 연령과 인지발달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이귀옥 외의 연구(2004)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한국어능력에는 연령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영어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어에 노출된 기간이 길어질수록 영어 점수가 높아진다, 이는 모국어인 한국어와는 달리 영어는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하여 학습능력이 향상되고, 노출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영어권 국가 방문을 통해 학원에서 배우는 것 외에 현지에서 현지인과의 경험을 통해 영어 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모 및 가정환경에 따른 유아의 한국어 능력과 영어 능력은 어떤가?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연변 조선족 아동의 이중언어 발달은 다양한 학교환경과 가정환경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귀옥, 전효정, 박혜원, 원영미, 김영주, 박태수, 나은경, 2003). 즉 부모의 학력과 소득수준, 가정의 물리적 환경, 가정에서의 언어사용 정도, 언어의 노출시기 등이 아동의 언어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유아의 영어능력에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엄마의 교육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가정에서 유아와 상호작용하는 주 대상이 아버지이기보다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영어를 도와 주거나 책을 읽어준다거나 하는 기회가 많아 유아들의 영어수준이 향상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어수준에 대한 인식이 유아의 영어 능력에 영향을 준다. 이는 본인들의 영어수준에 대한 인식으로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할수록 자녀들의 영어 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영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가정에서 자녀와 영어로 상호작용하는 기회를 넓혀 자녀의 영어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가정에서의 영어사용 정도도 유아의 영어능력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밝혀졌다. 가정에서 단순한 단어의 나열 일지라도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유아의 영어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한어사용 정도가 아동의 중국어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이귀옥 외(200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유아의 한국어 능력을 설명해주는 영향력 있는 가정환경 변수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한국어 문화권에서 가정 변인 외에 다양한 변인들이 유아의 한국어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아들의 한국어와 영어 능력의 상관관계

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영어 점수가 높은 유아일수록 한국어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에 영어 점수가 낮은 유아들의 한국어 점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 1언어의 발달이 제 2언어를 더 효과적으로 발달하게 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Huang, 1971; Cummins, 1981). 또한 부가적 이중언어주의를 지지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황혜신과 황혜정, 2001; Bain, 1996; Bialystok, 1988, 1991; Diaz, 1985; Galambos & Hakuta, 1988; Hakuta, 1987; Hakuta & Diaz, 1985). 영어조기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들이 그렇지 않은 유아들에 비해 영어점수가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그렇다고 한국어 점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결국은 모국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외국어를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중언어발달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비록 미숙한 단계일지라도 전반적인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조기영어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들의 영어와 한국어 능력은 다양한 환경적인 변인의 영향에 따라 달라지며, 따라서 단순히 조기영어교육의 효과를 이중언어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라고 결론짓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조기영어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제시를 위해 이중언어의 관점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시해주고 있지만 한편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점들은 후속연구에서 꼭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이중언어의 정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동안 조기영어교육을 이중언어의 관점에서 보고자 한 시도가 없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 의미에서의 정의를 받아들여 조기영어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들의 영어능력과 한국어 능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이중언어사용 유아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또한 언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어휘력 검사만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어휘력 검사만으로 언어능력을 다 파악하기는 힘들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어휘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언어능력을 측정해야 할 것이며, 본 연구의 유아들은 한국판 PPVT와 영어판 PPVT 검사를 받았는데 이는 비록 영어와 한국어로 이루어져 있기는 해도 동일한 검사를 두 번 받은 것이 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동일검사효과에 인한 변인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지지 받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연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동안 축적된 연구결과가 필요하며 후속 연구에서는 조기영어교육을 통한 유아의 이중언어능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을 함께 고려하고 다양한 이중언어 구사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앞으로 좀더 다양한 맥락에서 이중언어에 대하여 살펴보면, 미시적 접근에서 벗어나 사회문화적인 맥락까지 포함하는 거시적 접근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특히 이중언어는 문화적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그 문화에서 이중언어를 가치 있는 것으로 본다면 이중언어를 습득하는 아동은 한 언어를 습득하는 아동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이중언어에 대한 연구들은 이중언어를 습득하는 아동들은 두 언어의 습득이 가능하도록 주변 환경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며, 발달 속도의 기준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Owens, 2001). 또한 제2언어에 노출되는 환경의 결정적 특징은 다른 언어를 말하는 집단을 수용하는 태도이다(Glick, 1987). 전 세계 약 반의 아동은 한 가지 이상의 언어에 노출된다. 그러므로 언어발달 연구에서는 그러한 상황에서의 발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의 결과는 바람직한 교육방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유아의 건전하며 긍정적인 전인발달에 목적을 두고 심사숙고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조기영어교육, 이중언어발달, 아동특성, 부모 특성, 가정환경

### 참 고 문 헌

박민영, 고도홍, 이윤경(2006). 한국어-영어 이중언어사용아동의 음운인식능력. *음성과학*, 13(2), 35-46.

박주경(1993).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한국인 어린이들의 언어 선택에 대하여. *교육한글*, 6, 119-137.

박혜원, 곽금주, 박광배(1996). 한국 웨슬러 유아지능검사(K-WPPSI) 지침서.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1995). 그림어휘력 검사.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서혜라(1999). 영어 조기교육의 실태와 효과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양옥승, 김진영, 김현희, 김영실(2001). 한국 사립 유치원 영어교육의 실태. *아동학회지*, 22(4), 299-314.

우남희(2002). 영유아에 대한 조기 영어교육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이귀옥, 전효정, 박혜원(2003). 3-5세 아동의 이중언어 경험과 인지능력 및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 인지적 복잡성에 따른 분석과 통제이론을 중심으로. *아동학회*

지, 24(6), 1-14.

이귀옥, 전효정, 박혜원, 원영미, 김영주, 박태수, 나은영(2003). 중국 연변 조선족 아동의 이중언어 환경. 부산: 서림 출판사.

이귀옥, 전효정, 박혜원, 강완숙, 장미자(2004). 중국 조선족 아동의 한국어-중국어 이중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요인.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7(1), 113-129.

장미경(1995). 효과적인 조기 영어교육을 위한 제안-이중언어 사용과 이중언어 교육 분석을 중심으로-고려대학교 영어교육학과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유미, 조복희(1999). 유아의 모국어 능력, 외국어 경험 정도와 상위언어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3), 199-216.

홍종선(2000). 이중언어 교육과 한국어 외국어교육 과제. *영어교육연구*, 21, 79-99.

황혜신(2004). 조기영어교육이 유아의 이중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3(4), 497-506.

황혜신, 황혜정(2000). 이중언어(한국어-영어)를 하는 아동의 언어능력발달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1(4), 69-79.

Bain, B. (1996). *Pathways to the peak of Mount Piaget and Vygotsky: Speaking and cognizing monolingually and bilingually*. Rome: Bulzoni Editore.

Bialystock, E. (1988). Levels of bilingualism and levels of linguistic awaren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560-567.

Bialystock, E. (Ed.). (1991). *Language processing in bilingual childre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Bialystock, E., & Hakuta, K. (1994). *In other words*. New York: Basic Books.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Campbell, R., & Sais, E. (1995). Accelerated metalinguistic (phonological) awareness in bilingua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3, 61-68.

Cummins, J. (1984). Bilingualism and cognitive functioning. In Shapson, S. & D'Oyley, V(Eds.), *Bilingualism and Multicultural Education: Canadian Perspectives*.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Ltd..

De Avila, E. A., & Duncan, S. E. (1981). *Language Assessment Scales*. San Rafael, CA: Linguametrics.

De Houwer, A. (1995). Bilingual language acquisition. In P. Fletcher & B. MacWhinney(Eds.), *The handbook of child language*(pp.219-250). Oxford: Blackwell.

Diaz, R. M. (1985). Bilingual cognitive development:

- addressing three gaps in current research. *Child Development*, 56, 1376-1388.
- Diaz, R. M., & Klinger, C. (1991). Towards an explanatory model. In E. Bialysock (Ed.). *Language Processing in Bilingual Childre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llmfield, L. (1993). *Language*. New York, NY: Holt.
- Diaz, R. M., Padilla, K. A., & Weathersby, E. K. (1991). The effects of bilingualism on preschoolers' private speech.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6, 377-393.
- Dunn, L. M., & Dunn, L. M. (1981). *Peabody Picture Vocabulary Test-Revised*. Circle Pines, MN: American Guidance Service.
- Galambos, S. J., & Golden-Meadows, S. (1990). The effects of learning two languages on level of metalinguistic awareness. *Cognition*, 34, 1-56.
- Galambos, S. J., & Hakuta, K. (1988). Subject-specific and task-specific characteristics of metalinguistic awareness in bilingual children. *Applied Psycholinguistics*, 9, 141-162.
- Glick, J. (1987). Bilingualism: Cognitive and social aspects. In P. Homel, M. Palij, & D. Aronson(Eds.), *Child bilingualism*(pp.171-180). Hillsdale, NJ: Erlbaum.
- Hakuta, K. (1987). Degree of bilingualism and cognitive ability in mainland and Puerto Rica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8, 1372-1388.
- Hakuta, K., & Diaz, R. (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degree of bilingualism and cognitive ability: A critical discussion and some new longitudinal data. In K.E. Nelson (Ed.), *Children's language: Volume 5* (pp. 319-344). Hillsdale, NJ: Erlbaum.
- Hoff, E. (2001). *Language Development*. New York: Wadsworth.
- Hoffman, C. (1991). *An introduction to bilingualism*. New York: Longman.
- MacNamara, J. (1967). The Bilingual's Linguistic Performance, A Psychological Overview, *Journal of Social Issues*, 23. 35-47.
- Mulhern, M. M. (2002). Two kindergarteners' constructions of literacy learning in Spanish: A challenge to superficial balanced literacy instru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5(1), 20-39.
- O'Toole, S., Aubeeluck, A., Cozens, B., Cline, T. (2001). Development of reading proficiency in English by bilingual children and their monolingual peers. *Psychological Reports*, 89, 279-282.
- Owens, R. E. (1998). *Language Development*. NY: Allyn & Bacon.
- Pearson, B. Z., Fernandez, S. C., & Oller, D. K. (1995). Cross-language synonyms in the lexicons of bilingual infants: One language or two? *Journal of Child Language*, 22, 345-368.
- Pinsleur, P. (1980). *How to learn a foreign language*. Boston: Heinle and Heinle.
- Ricciardelli, L. A. (1992). Bilingualism and cognitive development in relation to threshold theory.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21(4), 301-16.
- Saville-Troike, M. (1988). Private speech: Evidence for second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during the "silent period," *Journal of Child Language*, 15, 567-590.
- Snow, C., & Hoefnagel-hohle, M (1977). Age difference in the pronunciation of foreign sounds. *Language and Speech*, 20, 357-365.
- Tabors, T. O. (1997). *One child, two languages*. New York: Brooks.
- Wong F. L. (1991a). When learning a second language means losing the first.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6, 323-346.
- Wong F. L. (1991b). A question for early-childhood programs: English first of families first? *Education Week*, 10(39), 32-34.
- Wilens, D., & Sweeting, C. (1986). Assessment of limited English proficient Hispanic students. *School Psychology Review*, 15, 59-75.
- Yelland, G. W., Pollard, J., & Mercuri, A. (1993). The metalinguistic benefits of limited contact with a second language. *Applied Psycholinguistics*, 14, 423-44.

(2007. 04. 26 접수; 2007. 07. 16 채택)